



# 唐門

불기 2558년

가을호

통권 제130호

唐門僧伽大學

만나면 헤어진다

（印）

이제 상어느 것을 영원하다 하겠으며  
지위가 높다하여 영구히 지킬 손가  
만 날때 줄거우나 헤어진 어찌하며  
태어 날이 좋다지만 죽음의 원인 되네

佛說菩薩本行經 舊譯明成  
（印）

불기2558년 통권 제130호 가을호

# 雲門

## 목차



- |    |                |                            |
|----|----------------|----------------------------|
| 02 | 호가산 운문사        | 만나면 헤어진다                   |
| 04 | 죽림현            | 선우 善友 평성                   |
| 06 | 교수논단           | 머리와 가슴의 조화 ② 서평            |
| 10 | 깨달음으로 가는 길     |                            |
| 11 | 想              | 김장 을 테면 와라! 진옹             |
| 12 | 학인논단           | 불교의 생명관에서 바라본 자살自殺 원일      |
| 19 |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원광소감圓光所感 영덕                |
| 22 | 기획연재           | 티베트어로 새기는 불교 이야기 석소남       |
| 26 | 치례법문           | 소임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치산         |
| 28 | 인도 여행기         | India 민우                   |
| 32 | 특별기고           | 이웃종교인에게 불교는? 최현민           |
| 36 | 수행의 두레박 하나     | 소임을 산다는 것은 계정              |
| 38 | 수행의 두레박 둘      | 원두반 스님들 덕인                 |
| 40 | 수행의 두레박 셋      | 잘 익은 마음밭 고추 송연             |
| 42 | 선태탐방           | 연꽃,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평오          |
| 45 | 풍경소리           | 늦은 가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치오  |
| 46 | 이 한 권의 책       | 『공려한 구름』 전 5권 梵馮集 明文堂출판 효령 |
| 48 | 운문논평           | 관계로써 성장하라 편집부              |
| 50 | 운문소식           |                            |
| 51 | 등불             |                            |

## 선우 善友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매화가지에 한 송이 꽃이 핍에 천하가 죽히 봄 인줄 알고, 오동나무 한 잎이 떨어짐에 온 세상이 가을 인줄 알 수 있다(梅枝片白 足知天下春 梧桐一葉 可知天下秋).”라고 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또다시 황금빛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대중에 와서 뜻을 같이 하는 도반 스님들, 선배 스님들과 함께 모여 공부해 보니 마음공부에 결실을 맺은 것이 있는지 우리 학인 스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혼자 살 때는 보지 않아도 되고 무관심해도 되었던 일들이 대중에 살다 보면 보기 싫어도 보아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훌륭한 스승과 도반들이 있는 대중처에 모여 살아야 합니다. 어질고 착한 사람들을 가까이할 수 있고(親近賢善), 금구성언金口聖言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존께서 영취산에 계실 때였습니다. 아난다는 세존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의 절반은 선한 벗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에게 “그런 말 말아라. 아난아! 선한 벗은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원만하며 깨끗한 범행梵行이란 이론바 선한 벗(善友)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중생들의 선한 벗이며, 중생들은 내 가르침으로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벗(善友)과의 사귐이야말로 수행의 전부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참뜻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중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항상 부드럽고 화합하고 선하고 수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이 지극히 부드럽지만, 자기를 낮추어 아래로 흘러 흘러 온갖 장애를 넘고 넘어,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것을 이기지 못하고, 투쟁은 화합을 이기지 못하고, 악한 마음은 선한 마음을, 보질고 거역하는 마음은 수순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화선순柔和善順은 곧 자비慈悲입니다. ‘자비무적慈悲無敵’이라 하였듯이, 자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에 살면서 유화선순柔和善順하기는커녕 스스로 칠난 체하는 아만我慢만 가득하다면, 마치 국가가 국 맛을 알 수 없듯이 대중에 살아도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우쭐대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대중 스님들은 어떤 시시비비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저 황금 들판의 잘 익은 벼이삭처럼 먼저 고개 숙여 합장하고 “모두가 제 잘못입니다. 성불하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겸허謙虛한 수행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 머리와 가슴의 조화 ②

서광 / 윤문사승가대학 강사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심장은 어떤 기관인가
  - 1. 심장의 기능
  - 2. 심장과 뇌의 소통
  - 3. 심장지능
- III. 심장작용과의 공명
  - 1. 사성제와 심장작용과의 관계
  - 2. 심장에게 물다
- IV. 나가는 말

### III. 사성제와 심장작용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최초로 설법하신 내용이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사실을 우리 불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 사성제의 첫 번째 단계는 현재 고통하고 있는 감정, 정서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고

수용하는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두 번째 단계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유발되는 원인에 대한 가르침이다. 세 번째 단계는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제거되었을 때, 우리의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표현될 수 있는지를 8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행동과 말, 생각이 올바르게 드러난다는 것은 팔정도를 의미하는데 치유적 관점에서 보면 ‘올바르다’는 것은 건강한 심리상태, 건강한 정신요인을 유지하는 정신적 신체적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유식 30송은 11종류의 선한 정신요소와 26종류의 선하지 않은 정신요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11종류의 선한 심리상태를 유발하는 말, 행동, 생각이 ‘올바르다’는 뜻이다. 반대로 26종류의 선하지 않은 심리상태를 유발하는 말, 행동,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는 의미다.

#### 1. 고성제

그러면 이제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4가지 성스러운 길, 사성제와 심장작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사성제에서 제 1단계는 고통에 대한 자각이다. 마음치유를 하자면 우선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먼저 괴로움을 알아차려야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 생각에 누구나 자신이 괴로우면 당연히 괴롭다는 사실을 알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다.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순간순간 육도를 윤회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육도가 운데 스스로 괴롭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인간 마인드에서만 가능하다. 나머지 다른 영역, 이를테면 지옥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공격성에 휩쓸려 그것과 하나가 되고, 아수라에서는 질투심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지 못한다.

## 2. 집성제

그러면 일단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했다고 치자. 그 다음 2단계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프고 괴로운 마음은 우리가 감정, 정서라고 부르는 마음의 특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유식심리학에서 말하는 26종류의 선하지 않은 심리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26종류의 정신요소는 탐욕, 화, 어리석음, 거만, 의심, 악한 견해, 원한, 질투, 의심, 속임, 인색, 아첨 등과 같은 것들로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선하지 않은 심리상태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다. 탐욕이나 분노, 거만, 질투 등의 불건강한 심리상태에 빠져 있으면 자신이 탐욕의 도가니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 존재가 탐욕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 3. 멸성제

그럼 이제 3번째 단계를 생각해 보자. 만일 우리가 탐욕이나 화, 질투, 미움, 아첨, 불안 등과 같은 불건강한 심리상태에 중독되어 고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야 하는가? 탐욕과 하나가 된 상태를 비유하자면 마치 높에 빠진 상태에서 하우적거리는 모습과도 같다. 높에 빠진 상태에서 하우적거리면 더욱더 높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서 점점 더 혼어나기 힘들어진다. 불건강한 심리상태, 즉 삶과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신이 높에 빠져 있다고 상상해 보라. 일단 높에 빠졌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그것이 사성제에서 고제의 의미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체의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하던 행위를 모두 그만둬야 한다.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행동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

기 때문이다. 정신적 고통도 같은 원리다. 어떤 심리적 반응도 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이든 판단이든 원망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멈추어야 한다. 그냥 숨만 쉬어야 한다. 오직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만 알아차리면 된다. 일체의 심리적 작용을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을 호흡명상, 또는 명상이라고 부른다. 명상은 고통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기본적인 기술이다. 불교의 선과 서양의 정신치료가 통합된 명상심리치료에서는 행위모드(doing mode)에서 상태모드(being mode)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행위모드에서 상태모드로 전환되는 과정은 머리에서 심장으로 주의가 이동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때 고통을 유발하는 감정의 강도도 점차 완화되어진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무조건 정신적 행위를 멈추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사람도 있다. 마치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힘겨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처럼, 생각하거나 판단, 기억, 상상 등과 같은 정신작용을 멈추는 것이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생각의 작용을 멈추려고 하기보다는 궁정적이고 유쾌한 기억이나 사건을 떠올리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경험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일정한 수준의 마음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라면 후자의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다. 괴롭고 힘든 심리적 상태에서 무조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괴롭고 힘든 상태를 유발하는 부정적 생각에서 일단 벗어나기 위해서 즐거운 심리상태를 유발하는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한결 수월하다.

## 4. 도성제

그렇게 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으면 이번에는 4번째 단계로 가슴과 함께 본격적인 작업으로 가슴, 즉 심장지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흔히 영적 스승들이 우리들에게 조언했던 소리들, ‘가슴의 소리를 들어라. 가슴에게 물

어봐라. 가슴을 따르라'는 충고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고통의 순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두 개의 문을 허용한다. 하나는 행복과 성장,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과 무지, 퇴보로 가는 문이다. 우리는 진실로 어느 문으로 가고 싶은지 스스로 가슴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도 좋다. 이때 우리의 주의를 호흡과 단전에 집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의가 호흡을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가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 IV. 심장작용과의 공명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심장지능을 활용하고, 심장과의 공조를 통해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고 배양시킬 것인지, 위에서 언급된 '심장의 소리 듣기'와 '심장에게 물어보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1. 심장의 소리를 듣다

가슴의 소리를 듣는 것, 우리의 마음이 가슴과 공명하는 작업은 아집을 치유하는 구체적 방법이다. 아집으로부터 벗어나는 직접적인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호흡과 단전에 주의를 집중하고 심장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은 사성제의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에 속한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이 아집이니까 아집을 제거하겠다고 자아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하심下心, 마음을 낮추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선부른 방식으로 하심을 주장하면, 마음은 그 반작용에 의해서 오히려 자아가 강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만심이 더 공고해진다는 뜻이다. 아집을 제거하려는 노력이나 하심하려는 의지 또한 자아의식의 기능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아의식은 아무리 숙이고 굽혀도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고개를

쳐들 수 있다. 자아의식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 주된 작용이 머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심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는 달리, 무의식에서는 도리어 자만을 중장시키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심장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심장의 맥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특별한 노력이나 애쓰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가슴으로 주의를 옮기는 것이다. 만일 집중하기 힘든 조건이나 상황이라면 눈을 감고 양손, 또는 한 손을 가만히 가슴에 얹으면 도움이 된다.

##### 2. 심장에게 묻다

고통을 자각하는 순간에 행복과 불행의 두 문이 열린다는 말은 치유적 관점에서 보면, 고통에 대한 자각의 순간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이라는 의미다. 고통은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갈림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고통하는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심장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지능을 활용하고 배양할 수가 있다. 어찌면 우리는 과연 정말로 행복하고 싶어하는가? 그것부터 우리의 심장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 순서일지도 모른다. 의외로 우리는 고통하는 일에 익숙해 있고, 고통이 습이 되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머리는 주로 편리함을 추구하고 생존을 위한 도구로 개발되어 왔지, 깨달음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살다가 보면 누구나 원하지 않는 상황과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또 크고 작은 일상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분노, 실망, 좌절 등의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저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힘겹고 고통스럽게 몰아갈 수도 있다. 고통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고통에 직면한 이상 우리에게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행복과 깨달음의 길로 가든지 불행과 파괴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

행복과 깨달음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머리가 아닌 가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단 일체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묻는다. 행복과 깨달음을 선택할 것인지 불행과 파괴를 선택할 것인지. 잘 모르겠으면 답을 얻을 때까지 묻고 또 물어봐야 한다. 약간의 인내심과 솔직함만 있다면 답을 얻는 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슴의 소리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사성제의 네 번째 단계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 즉 팔정도를 실천하고 구현하는 구체적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 V. 나가는 말

직관적인 마음은 거룩한 선물이고, 합리적인 마음은 충실한 하인인데, 거룩한 선물은 잊어버린 채 하인을 존경하는 사회를 건설해 왔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는 뇌의 인지, 언어, 조작 등의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 가치, 교육, 경제구조 등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궁정보다는 부정, 수용보다는 거부, 청찬보다는 비난, 협력보다는 경쟁에 익숙한 문화 속에서 급기야는 우월감과 열등감, 자신과 타자를 번갈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심지어는 자기소외, 자기파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불교는 처음부터 머리가 아닌 가슴을 움직이는 가르침이고 수행방법이다. 왜냐하면 불교는 전통적으로 5가지 감각기관과 여섯 번째 정신기관으로 심장을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글이 우리 두뇌의 기능이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 웰빙을 위해서 심장기능과 관련된 직관과 통찰, 지혜와 같은 정신작

용도 필요하지만 인지, 사고 추론과 같은 뇌기능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당연히 뇌와 심장의 공조가 절대적이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두뇌 중심의 삶과 문화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자는 소박한 바람에서 출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언에서 언급했듯이 심장지능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충분치 않다. 그러나 몇몇 경험적 연구들은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심장에게 물어보는 마음훈련이 타자를 향한 자비심과 이타심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자비심이나 이타심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문제해결 능력, 창의성, 회복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핵심능력을 확장시키고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는 승찬 대사의 말처럼,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고 쉬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냥 가끔, 또는 정기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의 소리를 듣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잠깐 일어나는 것은 병이고,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약이다.  
생각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알아차리는 것이 더딤을 두려워한다.

警起는 是病이요 不續은 是藥이며 不怕念起요 唯恐覺遲라 하니라

– 종색 선사 『종경록』 –



김장, 을 테면 와라!

진용 / 사교과



## 불교의 생명관에서 바라본 자살自殺

- 벼랑 끝에서의 고뇌,  
그리고 최후의 선택 -

원일 / 사교과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생명의 존엄성과 (자살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 1. 자살을 바라보는 시각
    - 1) 자살에 대한 찬성 입장
    - 2) 자살에 대한 반대 입장
  - 2. 우리나라 자살률의 실태
  - 3. 끊임없이 활동하는 세포들  
(생명존엄성과 윤리적 문제)
- III. 불교생명윤리 및 자살예방 수행 법
  - 1. 불교 생명 윤리와 자살
    - 1) 계율에 나타난  
불교 생명관(不殺生)
  - 2. 자살예방을 위한 불교 수행법 모색
- I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전한 과학 기술과 의료 기술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인위적으로 조작, 통제 가능한 시대이다. 이처럼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그림자들은 우리 사회에 윤리적 문제를 던져 주고 있다.

그 가운데, 이 글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 주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결국 한 생명을 포기하는 이들의 삶을 구체화하여 불교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보아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살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또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우리 사회의 자살은 연령과 계층, 성별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살하면 눈앞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는 막연한 희망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두 번의 상담만으로 마음을 바꾸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그들은 돈이나 학업 또는 단순한 생활고를 회피하기 위해 자살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고통이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망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잊게 만드는 것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해주고, 고통 속에서 치유의 기쁨을 찾게 해 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결정하여 마침표를 찍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보고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한 것인지 알아보고 무엇보다도 불교 수행법에 입각하여 그 대처를 살펴보자 한다.

### II. 생명의 존엄성과 (자살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1. 자살을 바라보는 시각

현대인들의 사망 원인 중에서 자살은 다섯 손 가락 안에 들 만한 요인이다.

수험으로 인한 중고생들의 자살, 해고와 취업 난으로 인한 청·장년층의 자살, 생활고로 인한 부부와 가족들의 자살, 심지어 부모에게 애단을 맞았다는 등의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목숨을 내던지는 아이들까지 생기고 있다. 자살이 범죄나 단순한 정신병이 아닌 중대한 사회현상이며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 1) 자살에 대한 찬성 입장

#### ① 자유 의지 실현

인간은 이성적인 판단하에서 자신의 생명 역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나름대로의 윤리 규정을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격전개의 자유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자유의지의 행사는 타인의 권리와 침해하지 않으면 도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리고 인격전개의 자유권에는 생명의 포기에 대한 권리 역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인도의 사티(sati)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을 잃은 아내가 남편의 극락왕생極樂往生을 기원하며 뒤따라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다.

#### ② 인격 보존을 위한 신체 처분의 행위의 정당화

더 이상 생존하면 인생의 가치를 보존할 수 없는 삶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인간은 아무런 삶의 의의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윤리적 관점으로 소중한 인생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표적인 경우 뇌사 또는 루게릭병 환자 등의 경우이다. 그들에게 죽음의 진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을 견뎌내야 하며 자살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③ 고통에 대한 동정

심한 고통을 받는 환자의 입장에 자신이 놓여 있다고 가정해보면 환자가 편안하고 품위 있게 죽는 길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아픔이 더욱 커진다면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동정하는 입장이다.

### 2) 자살에 대한 반대 입장

자살부정론自殺否定論은 중세, 근대 유럽이 대표적인데 자살은 신과 국왕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로서 비난하였으며 특히 그리스도교에서 자살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라 하여 이를 죄악시하고 종교적 제재를 가하였다. 가톨릭에서는 오늘날에도 자살을 죄악시하는 사상이 강하다.

또한 과거, 빈부격차가 심했던 사회적 구조는 귀족들의 화려한 삶에 대비되어 하층민의 상황은 열악하였다. 그들이 그 상황에 대해 불만과 자포자기로 자살할 확률이 많아진다면 경제적 구조가 파괴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층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사상적으로 자살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윤회사상 등을 통해 현실에서 충실하면 내세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며 현실의 불만을 잡채우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 2. 우리나라 자살률의 실태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해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으며, 최근 수험생들의 잇따른 자살 등 자살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자.



OECD에서 적용한 연령표준화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은 국가 간 또는 시계열에 의하여 생기는 연령구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OECD 인구구조로 표준화하여 산출한 수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 OECD' 헬스데이터2012

OECD에서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14'(2012년 기준) 중 우리나라는 올해도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 자료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29.1으로 2011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OECD 평균(12.1명)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이다.

2위가 24.5명의 영가리, 3위가 23명의 일본이고 나머지 선진국은 15명을 가까스로 넘거나 그 이하다. 자살예방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자살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중 가장 낮은 순위인 10위였다. 그것이 1998년에는 7위로 올라서더니 2010년에는 3위가 됐다. 지금 한국에선 자살로 죽는 사람 숫자가 당뇨병이나 폐렴, 교통사고, 고혈압으로 죽는 숫자보다 많다. 연령대별 사망 원인에서 10대, 20대, 30대에선 자살이 교통사고나 암을 제치고 1위이고, 40~50대에선 암에 이어 2위이다.

노인의 자살률은 10만명당 81.9명으로 세계 최대의 노인 자살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일본(17.9명)의 4배, 미국(14.5명)의 5배가 넘는다. 이렇게 1위라는 최악의 순위를 지키고 있지만 높은 자살률에 대해 노력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12

년 3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도 설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체계는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심각한 것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다. 자살이 해결책이 된다거나 또 그만큼 죽으면 고통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외부환경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보다는 감내하기 힘든 극단적인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기도 하며 현대사회가 다변화될수록 외적 요인보다 내적 요인에 의한 자살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3. 끊임없이 활동하는 세포들 (생명존엄성과 윤리적 문제)

생명이 존엄하다는 말은 생명이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며, 존중,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와 갖고 있음을 함축한다. 여기서 자살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우리의 뿌리 깊은 도덕적 직관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살고자 하며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로부터 생명에 대한 존중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도덕적 감정이 생겨난다.

자살옹호자들의 자살이 부조리한 현실의 해결책이거나 개인의 자유추구라고 강변할지라도 명백히 자신의 생명을 고의로 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살인을 금지하는 우리의 도덕적 감정에 저항과 당혹함을 불러 일으킨다. 여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들의 고의적인 살인은 과연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유태인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보낸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로고 테라피(Logotherapy)를 창시하여 의미치료를 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Viktor E. Frankl)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끔 “어째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면 환자들은 자기를 잡아주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자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무리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하는 사람도 지치고, 힘들고, 화날 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우리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해보면 자살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존재하기 위하여 내부에서 활발하게 생명활동을 하는 세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 III. 불교의 생명 윤리 및 자살예방 수행법

#### 1. 불교 생명 윤리와 자살

생명은 모든 육도 중생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 권력과 환경 그 어떤 외형의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생명은 하나이다. 하나밖에 없는 삶이기에 소중하고, 모두 소중하기에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이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생명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불행하게 할 이유와 권리가 당연하지는 않다.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온전한 몸과 정신을 받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부모나 자식, 친척 등 수많은 존재와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나’라는 존재는 무상하지만 모든 법계 존재들과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연기緣起의 법에 의존한다. 아함경<sup>1)</sup>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멀하므로 저것도 멀한다.”라고 했듯이 모두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 또한 모든 현상과 사물들의 복합체이므로 나름 형성하고 연결된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1) 계율에 나타난 불교 생명관(不殺生)

불살생不殺生은 생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으며 생명체를 파괴하지 않는, 모든 생명에 대한 경의심을 말한다.<sup>2)</sup> 생명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계문에서 빠질 수 없는 첫 번째 조항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계율로써 살생을 철저히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니까야』에서는,붓다가 베살리의 대림에 있는 중각강당에 머물 때,붓다가 신체에 대해 부정관不淨觀<sup>3)</sup>을 설하시고 찬탄하셨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지닌 부정에 대한 수행을 닦으며 지냈다. 그들은 이 봄을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하루에 열 명, 스무 명, 서른 명의 수행승들의 스스로 목숨을 끊자 미침내보름이 지나 세존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왜 수행승의 수가 감소했는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수행승의 무리를

1) [잡아함경] 13권 335.

2) 고려대장경전 불교용어사전

3) 5정심관停心觀의 하나. 몸이 깨끗하지 못함을 관함으로써 탐심貪心을 버리는 수행.

자신의 몸이 깨끗하지 못함을 관하는 방법으로써 9상想이 있음.

위하여 여러 가지 부정에 관한 주제를 말씀하시고 부정을 치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수행승은 다양한 형태의 부정관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봄이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움을 느껴 자결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승의 무리가 궁극적인 삶을 얻도록 다른 방편을 설하여 주십시오.”<sup>4)</sup>

『사분율』에 보면, 비구, 비구니가 수지할 계문이 있는데, 생명에 관련된 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4바라이 가운데 제3으로 살계殺戒를 두고 있다. 만일 살계殺戒를 범한다면 불공주不共住라 하여 이자는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되어 비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만약비구가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손수 끊거나, 칼을 주거나 칭찬하여 죽게 하거나, 권하여 죽게 하려하여, ‘슬프다. 남아여! 이 나쁜 삶을 살아서 무엇 하리요. 차라리 죽되 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방편으로 칭찬하여 죽게 하거나 권하여 죽게 하면 이 비구는 바라이로서 함께 머무를 수 없다.<sup>5)</sup>

위에서 본 초기경전이나 율장의 내용은 신체의 부정에 대한 세존의 설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 잘못임을 말하며 현생의 삶을 혐오하고 자살을 택하는 것도 옳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렇게 불살생계의 조문이 규정된 초기경전이나 율장의 내용으로 보아 자살도 살인 바라이죄 범주에 속하며 그렇다고 말하는 학자도 많다. 생명존중의 가르침은 불교 가르침 중 가장 기본이 되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불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재가자의 5계戒에서도 그 처음이 불살생계이다. 『중지부경전增支部經典』에서는 5계를 받아야만 완덕의 우바새가 된다는 것을 밝힌다.

대덕이여! 어떤 사람을 완덕의 우바새라 하는가? 만약 우바새가 살생을 멀리 떠나고, 도둑질을

멀리 떠나고, 부부와의 부정한 성관계를 멀리 떠나고, 망령된 말을 멀리 떠나고, 술 마시는 일과 마작 등 온갖 노름 행위를 멀리 떠난다면, 곧 완덕의 우바새라 할 수 있다.<sup>6)</sup>

살생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 또는 생명체의 살생을 인정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 불살생이다. 여기서 생명체는 살아 있는 모든 유정有情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계문에 첫 번째로 불살생계를 두고 있듯이, 자살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 스스로의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는 것은 곧 다른 이의 생명 또한 소중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살은 무명無明으로 인하여 오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 2. 자살예방을 위한 불교 수행법 모색

자살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들으면 그것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결국 집착과 고통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삶의 무게에서 번뇌, 좌절, 허무, 공허, 인생무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살의 이유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수행의 이유가 되는가.

삶의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고통 때문에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갖가지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근기根機에 따라 팔만사천 법문을 설하였다. 그러므로 불교의 수행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 수행할 수 있다. 이미 현대 사회에서는 명상 봄이 일어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수행하고 있다. 한순간, 자신의 강한 심리를 다스리지 못해 생기는 결과, 바로 자살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살도 불교 명상수행을 통해 개발된 지혜, 자비, 결단력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

하다. 명상수행에도 위빠사나, 간화선, 묵조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는 수식관數息觀이다. 부처님께서도 부정관을 수행하다가, 육신에 대한 혐오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자들에게 수식관을 통해 법에 머무는 법을 설하셨다.

수식관은 산란한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 들숨과 날숨을 헤아리는 수행법으로 숨이 들어올 때는 마음을 모아 숨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마음을 모아 나간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호흡을 통해 지금 여기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느낌 등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인 마음챙김(Mindfulness)을 통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할 수 있다. 이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에 이미 있는 본질적인 자질이므로 수행을 통해 더욱 개발시키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홀로 고요히 명상하며 수행을 닦아라. 수행승들이여, 홀로 고요히 명상하면, 수행승들은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무엇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가? 물질의 발생과 소멸, 느낌의 발생과 소멸, 지각의 발생과 소멸, 형성의 발생과 소멸, 의식의 발생과 소멸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sup>4)</sup>

호흡을 알아차림 하므로 마음 챙기는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몇 분 후, 호흡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지나간 일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계획까지 판단, 기억 공상 속으로 빠지게 된다. 생각에 잠

겨 헤매는 마음의 습관은 아주 강해서 쉽게 집중시키기 어렵다. 그 순간 달아나는 마음을 다잡아 번뇌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온다. 이 때 호흡을 놓쳤다고 실망하거나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각성이 꾸준하게 된다. 평온한 마음은 고통이나 불편한 감정을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직접 대면할 때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 자신을 가로막던 벽도, 나의 발목을 불잡고 있던 고통도 몰랐을 때는 그 고통에 갇혀 괴로웠지만 덧없이 지나가는 감정과 현상을 체득한다면 자살이라는 어리석은 선택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발전해 나아가면 삶의 고통이 결국 한 바탕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과 현상은 하루에 수도 없이 바뀐다. 자살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괴로웠던 마음도 없어진다. 순간 냈던 그 마음을 잠시 멈춰서 극복해간다면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나를 깨우는 108배 수행, 심리치료강의, 워크숍, 봉사활동, 템플스테이 등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다양한 수행과 프로그램이 있다. 혼자의 시간이 어렵다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도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생명강조 교육과 좀더 현실적인 생명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명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불교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4) 전재성역, 「쌍웃다니끼야」 7권, 제54 쌍웃따 호흡의 모음 p.422.

5) 「四分律」 卷2(「大正藏」 22, p.576中一下).

6) Anguttara-nikaya viii-25, vol.vi, p.220.

7) 전재성역, 「쌍웃다니끼야」 3권, 제22 쌍웃따 존재의 다발모음.

## IV. 맷는 말

뉴스나 신문을 보면 기쁘고 좋은 이야기보다 안타깝고 신경이 곤두서는 이야기가 많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 이 모든 아픔은 불교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함이 크다. 자살문제 또한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자살문제 등 생명윤리 문제는 21세기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숙제이다. 무조건 자살을 금지하는 것보다 자살하지 않아도 되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현실을 떠난 불교는 아무 의미 없다. 팔만사천의 법문도 현실에서 적용되어야 하듯이 불교도 사회가 내놓는 요구에 맞춰 부응해야 한다.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와 모두 만나는 과제이다. 자살뿐 아니라 약물중독, 알콜중독, 청소년범죄, 아동교육, 안락사, 뇌사, 노인문제 등 사회전반의 문제와 그 해결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불교적 사상체계와 이론 정립이 시급하다. 또 그에 따른 실제적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요구된다.

이 글은 그러한 움직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어설프게 썼다. 그러나 단순한 종교의 포교 목적이 아닌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다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소중한 삶을 마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고통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나락이라는 사실을 간절히 전하고 싶다.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불교인들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대사회를 지혜롭게 밝혀 나가기를 믿는다. ●

### 〈참고문헌〉

#### • 책

고영섭,『불교와 생명』(불교시대사, 2008)

에밀 뒤르켐,『자살론』, 황보 종우 옮김, (청아출판사, 2008)  
프리 초프 카프라,『생명의 그물』, 김용정, 김용광 옮김, (범양사  
출판부, 1998)

#### • 논문

목정배,『계율에 나타난 불교의 생명관』(한국불교학, 1995)  
이종표,『불교의 생명관』(범한철학회, 1999)  
안양규,『누가 허물없이 자살할 수 있는가』(불교평론 17호)  
전현수,『자살에 관한 잘못된 인식』

#### • 인터넷

<http://blog.daum.net/philook/15720057>  
[www.budife.or.kr](http://www.budife.or.kr)

## 원광소감圓光所感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강사

오늘은 불기 2558년 11월 6일, 음력 윤구월 열나흘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구월 윤달은 1832년 이후 처음 맞이하는 달이니, 꼭 182년 만에 돌아온, 지금히 만나기 어려운 달이라고 한다. 182년 전이라. 그때 우린 어디쯤에서 있었을까? 다시 182년 후에는 어디쯤 가고 있으려나. 한순간 잠이 깨고 쓴소리, 신소리, 분에 넘치는 소리가 쑥 들어간다. ‘지금 여기 이 자리서 잘 살아야 하는겨.’

‘日日是好日’, 나날이 좋은 날에 무슨 윤달을 따로이 찾으랴마는 윤9월 저녁예불 어스름 새에 등실 떠 오른 만월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한없이 깊고 엄정한 달빛을 바라보며 어릴 적부터 무수히 낚서처럼 그려 보던 그 산봉우리가 멀리 있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아차린다. 갖고자 해도 말릴 사람 없고, 쓰고 또 써도 다 힘이 없는 청풍명월 천지자연을 이만큼이나 쓰고 가진 至福,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게다가 무뚝뚝한 돌, 늙은 서책이 있는 한 칸 방에서 종일 굴러도 못다 만나는 선지식들이 있으니, 밖으로 돌며 구하던 헐떡거림을 쉰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안다.

一期一會의 절실한 삶 앞에서, 똑같은 실수를 거듭하며 타성에 절은 습업의 둔탁한 眼目에 때때로 절망하기도 하지만,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하여 그 밖의 것들을 접어두어도 섭하지 않다. 세월이 빠르고 소년은 늙기 쉬우니, 이 나이 되도록 이룬 것 하나 없음을 부끄러워할 따름이다.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알고 산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나의 삶에 작은 가능성을 기대해본다.

윤달은 복과 공덕을 짓는 달이라고 한다. 나와 남을 위해 복덕을 쌓는 시간으로 人我山을 파하고 功德의 숲을 장양하는 각종 經典山林이 전국의 대소 사찰에서 한창이다. 생전예수재·가사불사·삼사순례 등으로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기원’하며, 운문사 땅을 밟고 지나가는 불자님들로 인하여 가을 내내 연일 흥겹다. 운문사에서도 윤달을 맞이하여 우듬지에 있던 ‘세속오계비’를 대웅전 뒤 도량 안으로 이전하였다.

지난 2013년 9월 24일 원광화랑연구소 開所 아래 세미나를 통해 화랑도 정신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새 천년을 열어갈 청년정신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차제에 운문사 천오백년의 역사와 전

통 및 시대마다 주역에 서서 민중을 이끌어온 사상 및 인물에 대한 연구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속에서 미래를 배우는 溫故知新이 아니면 누군들 沙上樓閣의 누를 면할 수 있을까.

인류 역사상 시대마다 ‘才難’에 대한 언급이 있다. 재난이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와 중생들의 고뇌를 자기의 고뇌로 여기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방도를 제시할 수 있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기본적인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총체적 입장에서 역사를 볼 수 있는 자, 끊임없는 관조와 자기 개발 및 철학적 사유 속에서 지도자로서의 덕목과 애민의 역량을 갖춘 자만이 미래를 열 수 있는 안목을 얻는다. 신라 중고기에 있어서 이러한 인재의 속성을 가장 잘 갖춘 분이 바로 원광이다.

원광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의 세속오계이다. 세 속오계 하면 화랑도정신이, 화랑도정신 하면 신라의 삼국 통일에 이르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당시 신라 왕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점, 둘째는 김유신 같은 탁월한 군사적 영웅이 존재했다는 점, 셋째는 당시 국제 교류에서 외교적 성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시대의 문제를 냉엄하게 고민하여 이념으로 생산해 내고, 불굴의 정신으로 단결하여 국난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아 주신 원광과 같은 선지식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어느 저물 네〈화랑오계비〉앞에서 ‘임전무퇴’ 계목에 이르러 목젖이 아프도록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싸움에 임하여 물려서지 말라.’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 죽이지 못하면 죽어야 하는 전쟁터에서 두려움을 용기로 전환시키며 백일홍처럼 쏟아지는 선혈이 땅을 적실 때, 원광은 아마 남모르는 곳에서 피를 토하듯 흐느꼈으리라.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짚은 영령의 산화를 위무하느라 뼈를 깎았을까. ‘바람 쓸쓸하고 역수 물 차도다! 장사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 莊軒의 비감보다 천 배나 서려워도 호법을 위한 호국 앞에서 의연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법력을 그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었겠는가!

차제에 원광 세속오계의 교육적 문화적 전망에 대한 苦言을 정리해 본다. 원광 세속오계의 교육적 의미는 다음과 축면에서 21세기 글로벌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다. 이 시대 리더의 덕목인 능동성을 화랑의 공동체 의식에서 발현시킨다. 서로간의 위계질서인 공경과 자애,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배우는 공동체 생활의 확립,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람을 키우는 전형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자연관찰과 호연지기를 길러준다. 현대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바른 인생관과 세계관 및 도덕 윤리적 인성의 문제에 있어서 불교적 가치관을 배우게 한다.

문화적 전망으로는 첫째, 짚은이들이 함께 모여 忠孝仁義勇의 화랑정신을 배우며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극대화시키게 한다. 생활예절과 문화적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인격완성의 지도자상으로 21세기 살아 움직이는 원광상의 전형이 자기 삶 속에서 체탈되게 한다. 셋째, 가술갑사와 운문사에서 보살계를 통해 인간본연의 진실성과 청정성 회복을 도와주며, 점찰보의 활성

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에서부터 범국민 단위의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전통을 확대시킨다. 지자체 중심의 문화유산 정책이 실패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현장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다. 불교문화 유산도 예외가 아니며,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보고 느끼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발견해 가는 Software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사찰 중심의 전통한 놀이문화로는 성불도 놀이 / 시조 암기 놀이 / 다도 / 선정 체험 / 정서적 친밀성 사유적 내면 성찰을 위한 묵언 수행 / 식물 생태계 관찰 걷기 산행 / 경전독송 대회 / 본질적 인격완성, 나는 누구인가! 내면의 소리 듣기 / 재덕겸비의 인간성 완성자로의 자화상 그리기 / 동적 체력단련, 선무도 태극권 / 경주 안강 금곡사와 운문사 간의 화랑로드뿐만 아니라 인간 원광의 삶과 고뇌 그의 수행을 재현해 보는 중국유학길 답사 로드 체험 등 사이버 공간에 길든 동환적 자극적 놀이 문화에서 젊은이들을 현실 속으로, 자연 속으로 불러내어 산이 쟁쟁 울리도록 고함쳐 볼 수 있는 호연지기를 길러 주자는 말이다. 그 밖에 문화 지킴이의 인력 전문화와 세부적 역할 분담 등 꾸준한 관심에 의한 연구 축적만이 〈원광화랑연구소〉 존속의 명실상부한 미래가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연구소의 대내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연구소 내에서 끊임없이 서지학적 기초자료가 정리, 독해되며 토론되는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근간 학계에서 원효나 의상의 일문을 찾아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현존하는 문헌을 통하여 그 계통과 사상 등을 논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실된 문헌의 조사와 逸文에 대한 자료 수집은 대단히 중요하다. 원광의 『여래장경사기』와 그의 가계도를 알 수 있는 『화랑세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僞本으로 간주되는 필사본일지라도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한다. 한국 사료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의 불교문헌에서도 원광 당시의 교학 및 사적 개연성 있는 주변 자료를 찾아야 한다. 이것은 원광연구뿐만 아니라 신라불교의 연구저변 확대에도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재원과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문사 주변에 남아 있는 원옹국사비 / 설송연초비 / 신도비 / 부도 / 비로전 목판본 / 일연의 삼국유사 총론 각론 / 조영각 콘스님들의 유업 찾아 자료정리 / 도봉당 유문 『법성계과주』/ 운문사 사기 / 기타 『운문사현전문헌자료총람』을 만드는 일은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밤이 깊어 두서없는 원광소감을 마친다. 관음동 정취굴에서 -終-

## 티베트어로 새기는 불교 이야기

석소남 / 부산 광성사 주지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티베트 강원에서 5대경을 배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이를 한국말로 옮기는 것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베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한국말로 표현하는 것에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티베트 강원에서 스님들이 일대일로 논쟁할 때 쓰는 표현 규칙과 대답하는 사람의 표현 방법이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의 말로도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티베트어만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티베트에서 공통으로 쓰는 불교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여래십호라고 부처님의 열 가지 명호로 알려져 있지만 티베트어로는 열 가지 외에도 갈와(승리자), 번뇌장과 소지장에서 벗어나 이기신 분), 둘왕(농인 중의 농인, 번뇌장뿐 아니라 소지장까지도 제거해내는 힘을 가지셨기에 이렇게 부름), 사계질뽀(석가족의 왕)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래십호를 범어, 티베트어, 한국말로 각각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래십호 如來十號

1. 여래如來 : 지금까지의 부처님들과 같은 길을 가신 분. 범어로 따타가타(tathagata), 티베트어로 데신빠(དྱାତ୍ରାଗତ୍ତା)이며 물에 물 탄 것처럼 제법의 진여(공성)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얻으신 분.
2. 응공應供 : 온갖 번뇌가 끊어져 인간·천상의 종생들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덕이 있으신 분. 범어로 아라hat(arhat), 티베트어로 다쯤빠(ଘାତ୍ମକମା)이며 뜻은 적(번뇌)을 물리치신 분.
3. 정변지正遍知 : 우주의 모든 일을 다 깨달으신 분. 범어로 삼약 삼 봇다(Samyak sam buddha), 티베트어로 양덕빠르 족폐상 게(ୟାଂଦ୍ରାପର୍ବତ୍ତାଶ୍ଵରମା)이며 올바르게 원만구족하신 봇다로서 지혜와 방편에 있어 부족함이 없으신 분.
4. 명행족明行足 : 계정혜 삼학에 의지해 무상정변지를 얻으신 분. 범어로 비치차라나삼반나 (vidyacarana-sampanna), 티베트어로 립빠당 샹쑤덴빠(୲ିପାତଙ୍ଗଶାନ୍ତିନାମା)이며 지혜의 바른 견해와 방편의 대자대비 보리심을 모두 갖추신 분.

5. 선서善逝 : 여실히 저 언덕에 가서 다시 생사운회에 빠지지 않는 분. 범어로 수가타(sugata), 티베트어로 데와르빠(བେ་වର୍ପା)이며 깨달아야 할 측면과 제거해야 할 측면에서 하나도 걸림 없이 잘 가시는 분.
6. 세간해世間解 : 일체 세간의 온갖 일을 다 아시는 분. 범어로 로가비(lokavit), 티베트어로 직덴肯빠(བྷ୍ତେଣ ཀ୍ଷିଦ୍ଧା)이며 세간과 그 안 중생의 습성, 근기, 생각, 인연까지 모두 잘 아시는 분.
7. 무상사無上士 : 가장 높아 위 없는 분. 범어로 아누다라(anuttara), 티베트어로 라나메빠(ར୍ନୁତ୍ତା)이며 집착이 강해 다스리기 힘든 난다, 분노가 강해 다스리기 힘든 양굴리 말라, 자만이 강해 다스리기 힘든 우루빈두가섬, 어리석어 다스리기 힘든 주리반탁가 등 중상을 다스리는 데 가장 최고로 위 없는 분.
8. 조어장부調御丈夫 : 대자大慈, 대비大悲로 중생을 잘 가르쳐 인도하시는 분. 범어로 부루사담 맥사라제(Purisadammasarathi), 티베트어로 께부돌외 칼로규르와 (ୱେବୁଦ୍ଧୁମ୍ବାର୍ଥେ କାଲୋକୁର୍ବା)이며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안내자 같은 분.
9. 천인사天人師 : 하늘(천신)과 인간의 스승. 범어로 사다제바마누사남(sasta devamanusyyanam), 티베트어로 라당미남끼띤빠(ར୍ଲାଂଦମିନ୍ଦ୍ଜିଲ୍ଲାଙ୍ଗା)이며 육도의 모든 중생을 설법으로 이끄시지만 주로 천신과 사람을 이끄시는 설법자이기 때문에 천인사라고 함.
10. 불세존佛世尊 :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범어로 봇다 박가범(buddha bhagavan), 티베트어로 쌍계 쯤덴데(୛ୟ୍ୟାମ୍ଭାଗବାତ୍ମନ୍ତ୍ରେ)이며 쌍계는 모든 허불(번뇌장과 소지장)에서 벗어나 일체공덕(지혜, 자비)을 모두 갖추신 분, 쯤덴데는 멀하고 갖추고 벗어난 자라는 뜻으로 네 가지 악마(온미蘊魔, 번뇌마煩惱魔, 사마死魔와 천자마天子魔)를 멀하고 여섯 가지 원만한 공덕(자재원만自在圓滿, 형색원만形色圓滿, 길상원만吉祥圓滿, 성명원만聲名圓滿, 지혜원만智慧圓滿, 정진원만精進圓滿)을 갖추고 윤회와 열반의 두 변으로부터 벗어나신 분.

## 라마

범어로 구루, 한자로 상사上師, 티베트어로 라마이며 티베트 밀교수행에서 스승을 부처님으로 믿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특별한 수행법 즉 구루요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 티베트불교가 처음 전파될 때 라마교라고 알려졌고 그로 인해 한국에서도 라마교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라마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라마는 부처님처럼 위 없는 분 또는 부처님의 화신으로 나투신 화신불化身佛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깜도 (귀의 歸依)

삼악도와 윤회의 고통을 가슴 깊이 두려워하고 그 고통에서 완전히 구제할 수 있는 분은 불법승 삼보임을 굳게 믿는 마음. 그리고 귀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거듭거듭 마음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삼보에 의지하는 믿음이 생길 때 진정한 귀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귀의의 원인, 귀의의 대상, 귀의의 방법, 귀의의 학처學處, 귀의의 이득 등 다섯 가지 내용을 잘 배워 귀의의 방법을 알고 귀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출생 (보리심 菩提心)

이타리他를 목표로 해야 할 수 없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완전한 깨달음 즉 성불하겠다는 원력으로부터 생기는 대승도大乘道의 기둥, 즉 대승의 입문인 수승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한두 번 생겼다고 해서 보리심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 또한 거듭거듭되는 마음의 훈련을 통해 저절로 생겨나는 집착과 분노심처럼 앞서 말한 수승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때 보리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願보리심과 행행보리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체메시 (사무량심 四無量心)

- 자무량심慈無量心 : 무량중생을 향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갖기 바라는 마음으로 무량중생을 향해 아름답고 예쁘게 보는 따뜻한 자애의 마음.
- 비무량심悲無量心 : 무량중생을 향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무량중생의 다양한 고통을 향해 불쌍하고 안쓰럽게 보는 연민의 마음.
- 희무량심喜無量心 : 무량중생을 향해 고통 없는 행복 즉 해탈의 행복을 얻기 바라는 마음으로 중생이 가진 작은 행복부터 큰 행복에 대해 질투 없이 기쁘게 보는 마음.
- 사무량심捨無量心 : 무량중생을 향해 가깝고 먼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게 보는 마음.

## 싹떼 (침회 懺悔)

사대치력四對治力으로 업장을 소멸시키는 수행으로 사대치력에 의지해서 모든 악업을 침회할 수 있습니다. 사대치력 중 첫 번째는 의지처에 의지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는 위로는 불보살을 대상으로 지은 죄와 아래로는 중생을 대상으로 지은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침회하기 위해 귀의와 보리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귀의를 해서 불보살님께 지은 죄를, 보리심에 의지해서 중생에게 지은 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 속 깊이 후회하는 힘입니다. 마치 실수로 독약을 먹었을 때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잘못한 죄에 대해 절절하게 후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숨 다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힘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두 가지라도 버릴 수 있다면 미련 없이 버리고, 그럴 수 없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계를 받아 지은 죄를 침회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거듭거듭 결심하는 힘을 말합니다. 네 번째, 대치對治를 실천하는 힘입니다. 죄를 침회하기 위해 신구의身口意로 하는 모든 수행을 말하며, 여기에 여섯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①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②진언을 외우는 것, ③경전을 독송하는 것, ④공성을 깊게 사유하는 것, ⑤공양 올리는 것, ⑥부처님의 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대치력의 침회 방법을 통해 바르게 침회하면 소멸시키지 못할 죄업이 없습니다.

## 로종 (마음 닦기)

로종은 마음 공부, 마음 바꾸기, 마음 훈련, 마음 다스리기, 마음 고치기, 마음 비우기, 마음 닦기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 마음 공부 : 긍정·부정 등의 마음에 대해 잘 배워서 취하고 버리는 것.
- 마음 바꾸기 : 이기적인 마음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것.
- 마음 훈련 : 자비 등 긍정적인 마음을 연습을 통해 발전시키는 것.
- 마음 다스리기 : 부정적인 마음인 집착, 분노로 가지 못하게 다스리는 것.
- 마음 고치기 : 기계가 고장 난 것처럼 여러 문제로 오염된 마음을 고쳐나가는 것.

- 마음 비우기 : 욕심 등 온갖 번뇌로 차 있는 마음을 버리는 것.
- 마음 닦기 : 때와 같은 번뇌와 악습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히 닦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관세음보살님 육자대진언인 ‘옴 마니 빼메 흄’에 대해 티베트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ଓঁ-মা-নি-য়ে-হুঁ॥

산스크리트어로 ‘옴’은 아, 우, 마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신구의 삼문三門을 뜻합니다. 우리 중생의 신구의 삼문은 번뇌와 악습으로 청정하지 않고, 부처님의 신구의 삼문은 그런 번뇌와 악습에서 벗어나 아주 청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원래부터 신구의 삼문이 청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수행법을 통해 청정해진 것인지를 묻는다면 앞서 부처님의 생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가 모니 부처님 역시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윤회하셨지만 바른 스승을 만나 오랫동안 수행을 함으로써 결국 성불하신 것입니다. 그 바른 수행법들은 다양하지만, 요점을 간추리면 ‘마니’의 의미로 담긴 보리심과 ‘빼메’의 의미로 담긴 공성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마니’는 여의주를 뜻합니다. 여의주는 모든 소원들을 이루게 하는 보배인 것처럼 보리심 또한 일시와 궁극의 목적 모두를 이루게 하십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빼메’는 연꽃을 뜻합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공성을 깨닫는 지혜 역시 번뇌 있는 중생의 마음으로 생기지만 그 번뇌에 물들지 않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흄’지는 함께라는 것을 뜻합니다. 보리심과 공성을 깨닫는 지혜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해드리자면 ‘마니’의 의미가 담긴 참된 보리심의 방편과 ‘빼메’의 의미가 담긴 공성을 깨닫는 반야의 지혜 즉 방편과 지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흄’자의 의미처럼 방편, 보리심과 반야의 지혜를 함께 닦는다면 우리의 청정하지 않은 신구의 삼문을 청정한 봇다의 신구의 삼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리심과 반야의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법만이 성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큰 가르침이 ‘옴 마니 빼메 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옴 마니 빼메 흄’ 육자대진언은 의미상으로 팔만사천 법문의 핵심 모두 다 들어 있는 ‘진언의 왕’이라고 티베트의 스승님들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티베트불교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

## 소임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지산 / 대교과



안녕하십니까. 대교반 지산입니다.

대중스님들께서는 평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지내십니까?

나의 신심, 소임, 도반 등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오고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운문사에서 뺄 수 없는 소임! 소임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운문사는 입학과 동시에 소임을 뽑게 됩니다.

요즘은 소임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친 후 소임을 뽑는데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기대를 버리세요. 본론으로 돌아가 제가 이야기하고픈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째, 자원自願. 스스로 원하여 살자.

전 소임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즐겁게 하는 것 이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소 별좌소임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쉽게 결정을 못 내렸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중에 이미 자리가 채워졌는데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어서 고민 끝에 결국 뽑힌 소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살았습니다. 소임에 대해 이리저리 따지면 소임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 소임을 뽑을 때 마음껏 마음을 내십시오.

둘째, 즐겁게 살자.

맡은 바 일은 나의 봇입니다. 내가 게으르거나 책임감 없이 임한다면 나 하나로 인해 여러 대중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별좌 살 때 일인데요, 방학을 며칠 앞두고 칼질하다 손의 살점을 잘랐습니다. 그때 당시 음식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짐과 동시에 체력이 떨어져 정신도 나태해졌습니다. 저의 부주의

로 인해 반스님들과 원주별좌스님에게 걱정과 폐를 끼쳐 너무 미안했습니다. 소임에 임하는 제 자세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계가 오면 더 정신차리고 더 신심을 내야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왕 해야 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 셋째, 소임에 집중하자.

제가 바로 집중형인데요, 소임을 살면 책과 경전은 뒤로 하고 소임만 삽니다. 제가 소임을 살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챙기면 제가 할 일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다지 모범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보겠다고 3년 동안 애를 써왔는데 화엄이 돼서 소임 살 때는 소임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한 제 경험의 결과, 소임에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에 미련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임을 살 때 변화무쌍한 제 마음을 잘 알아차릴 수 있어 마음공부하기에 소임은 최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화엄 막내스님들이 빼놓지 않는 감사인사를 끝으로 오늘 차례법문을 마치겠습니다.

4년 동안 회주스님 이하 모든 어른스님들, 대중스님들, 우리 화엄반 내 도반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너무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대중스님 여러분, 세세생생 불퇴전하는 수행자가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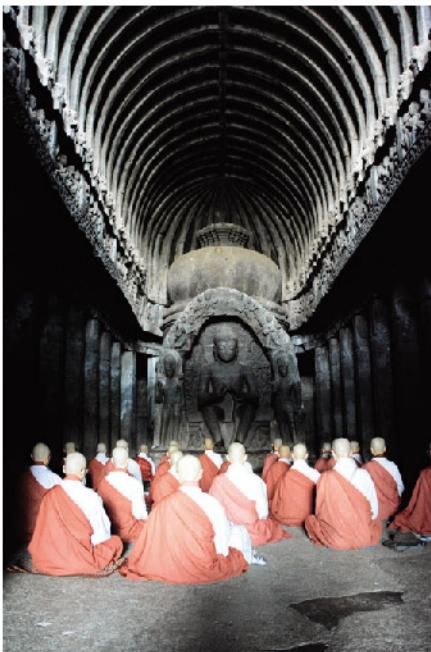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





## India

민우 / 대교과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13박 15일 동안 룸비니, 보드가야, 사르나스, 쿠시나가르, 라즈기르, 상카시아, 쉬라바스티, 바이샬리 등의 8대 불교 성지와 그 밖의 불교 유적지인 엘로라, 아잔타 석굴, 산치와 케사리아의 대탑 그리고 나란다 대학뿐만 아니라 인도의 수도인 델리, 타지마할의 도시 아그라, 갠지스강이 흐르는 바라나시, 그리고 네팔의 포카라, 카트만두를 아우르며 총 18곳을 다녀왔습니다.

인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33배로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큰 나라인데요, 저희들은 이 기간 동안 인도 전역은 아닐지라도 그 절반가량 되는 지역들을 찍고 달리고 찍고 달리고를 반복한 버스 고행을 하며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 성지순례 대장정의 첫 번째 방문지는 렐리였습니다. 인도 국립 렐리박물관에서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종래에 친견해왔던 구슬 모양의 사리와는 달리 푸석푸석한 돌조각과 같은 사리가 유리 탑 속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진신사리는 1897년부터 이후 100년 사이에 인도의 서북쪽, 네팔 국경에 위치한 빠쁘라호와의 탑 속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굴된 사리함과 사리병 속에 들어 있던 부처님의 유골이었습니다. 이 사리함의 뚜껑에는 석가족의 석가모니라는 글귀가 고대 뾰라끄리뜨어와 브라흐미 문자로 쓰여 있었고, 이 유골은 바로 부처님의 두개골 뼈로 추정된다고 하니 저희들은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과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렐리박물관의 고고학 전시장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문헌 속의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음을 그 고고학적 증거물로 증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사원이 아닌 박물관에서 다른 방문객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낮은 소리로 기도를 올려야 했던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사실 성지 순례하는 내내 너무나 쇠퇴해서 지금은 허물어져가는 폐허와 다름 아닌 성지들을 둘러보며 저희들은 아마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16개국 중 최고의 힘을 자랑했던 마갈다국의 수도 라즈기르의 죽림정사, 당대 최고의 재벌이었던 수달타 장자가 살았던 쉬라바스티의 기원정사, 부처님께서 사랑해 마지않았던 바이샬리의 사리탑 등을 돌아보면서, 인도라는 나라의 후진성이나 낙후된 시설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믿고 송상받지 못하는 죽은 불교를 목격하고 느끼면서 성지를 참배하는 환희 속에서도 쓸쓸한 안타까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보드가야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랐었습니다. 빠빠한 일정 속에서도 보드가야에서는 반나절 이상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저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대탑으로 이동해서 부처님의 성도를 축하하는 불교인들의 무리 속에 섞여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스님들과 재가신도들이 대탑 주변에서 법회를 열기도 하고, 빼알리어 경전을 독송하기도 하며, 오체투지와 탑돌이, 좌선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수행하며, 누리는 그곳에서 저희는 범세계적으로 살아 있는 불교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탑 주변에는 티베트, 태국, 중국, 스리랑카 등 많은 외국 사찰들이 들어서 있었고 그곳에서 상주하는 많은 스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생각, 이 모두를 불교라는 하나의 끈으로 엮어서 조화롭고 평화롭게 어울려 기도할 수 있다니 너무나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오랜 옛날부터 불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타 종교간에서도 있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 5세기부터 12세기까지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의 사원이 함께 조성된 엘로라 석굴 사원은 그 아름다운 조각 기술뿐만 아니라 이 세 개의 종교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관용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엘로라에서 버스로 2시간 정도 거리에 기원전 2세기부터 조성된 아잔타 불교 석굴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강물에 의해 침식된 크게 굽은 절벽에 크고 작은 석굴 30개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석굴의 조형미와 화려한 벽화로 인도 불교 미술의 최고봉이라 인정받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 옛날,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시절에 수행자들이 몇 세기에 걸쳐 절벽에 매달려 굴을 파서 승방을 조성하고, 불상을 조각하고, 불화를 그렸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인류는 호모 릴리글로수스, 즉 종교적 인간이라고 정의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종교적 이상



을 추구하는 본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기원전 3000년 이전의 인더스 문명에서 내려오는 가부좌한 요가 수행자의 조형물에서부터 절벽의 승방에서 기도하며 좌선했던 수행자들과, 지금 목조건물에서 삭발염의하고 붉은 가사를 걸치는 우리들은 아마도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상념에 젖어보기도 했습니다.

슬프게도 이렇게 너무나 풍부한 종교적, 사상적 역사와 유물을 가진 나라 인도에서 그와 대조되는 많은 광경들도 목격했습니다. 원달러를 쉬지 않고 구걸하는 아이들과 10루피짜리 물건을 10달러로 속여 파는 상인들, 거리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오물더미와 주인 없이 길거리를 혜매는 개와 소, 역주행이 가능한 차선이 없는 고속도로, 절대 제 시간에 탈 수 없는 기차와 비행기 등 이런 혼란과 무질서도 또한 인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온갖 오물뿐만 아니라 타다만 시체까지도 떠다니는 잔지스 강물을 성수로 여기고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이 물로 목욕하기를 염원하는 인도 사람들. 아마 인도는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고 차안과 피안이 뒤섞여 있으며,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과 공이 둘이 아닌 분별을 떠나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곳이기에 부처님께서는 인도를 선택해서 나신 걸까요. 여행 말미에는 저희들 각자 이런 화두 하나씩은 안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어른스님들과 대중스님들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여행 후기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

## 1. 오랜 수행전통을 지닌 종교로서의 불교

율여름에 운문사 편집부로부터 <다른 종교에서 바라보는 불교>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내 종교, 남의 종교’로 편 가르는 듯 한 인상을 풍겨서인지 ‘다른 종교’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다른 종교>보다 <이웃종교>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우리나라에서 이웃종교인들과 종교대화를 해온 몇 안 되는 곳 중에 씨튼연구원이 있다. 필자는 이곳에서 20여년간 종교 간 대화를 해오면서 종교 간의 다른 보다는 서로 간에 만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느끼곤 했다. 가톨릭 수도자인 나는 불교에 매력을 느껴 불교를 공부해오고 있다. 내게 불교가 친숙하게 다가온 것은 수도전통을 지닌 그리스도교처럼 불교도 오랜 수행전통을 지녀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불교와 인연이 깊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할머니는 출가를 생각하실 정도로 불교신심이 깊은 분이셨던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할머니 기일이 되면 가족을 데리고 강릉포교당에 가서 할머니를 위한 제사를 지내곤 하셨다. 아마 내가 불교에 관심을 지니게 된 것도 할머니의 종교적 심성이 내게 전해졌음이 아닌가 싶다. 어쨌거나 그 후로 불교와 특별한 인연은 없었지만 가톨릭 수도자가 된 후 여러 종교를 공부하면서 불교를 좀더 깊이 알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다. 그건 아마 불교수행전통이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내게 강한 울림으로 전해져온 듯 싶다.

일본 유학시절에는 나고야에 있는 애지니승당愛知尼僧堂에서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일종의 용맹정진인 ‘셋신(せっしん接心)’에도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체험은 지금도 내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저녁 9시까지, 식사와 좌선 사이의 중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야 했던 명상수행은 처음에는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앉아 있음’ 그 자체에 익숙해져 갔고 몸의 앓음을 서서히 마음의 앓음으로 이어져갔다. 그렇게 1주일간의 셋신수행을 마칠 수 있었던 건 아마 함께 수행한 비구니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이것이 바로 중력수행衆力修行 대중

# 이웃종교인에게 불교는?

최현민 / 종교대화 씨튼연구원 원장



위신력大衆威神力이 아니겠는가? 셋신수행의 경험은 나의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 나를 더 깊은 진리 속으로 침잠케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수행력을 키워갈 수 있는 종교전통이야말로 불교가 지닌 종교적 힘이며 그 힘이야말로 오늘날까지 불교를 존속케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갈수록 현대사회는 각박해지고 개인주의화되어간다. 서로에 대해 공감하기보다는 상대를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쳐만 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망 속에 있음을 자각치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연기적 존재임을 자각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을 깊이 들여볼 수 있는 명상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나는 오랜 수행전통을 지닌 불교적 가르침이 현대인에게 더욱 절실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한다.

## 2. 종교대화의 장에서 만난 불교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독특한 다종교문화를 지니고 있다. 물론 이 땅에 종교적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종교 간의 분쟁과 갈등을 겪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평화적 공존을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씨튼연구원에서는 유교 불교 기톨릭 개신교 원불교 다섯 종단에 속한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 같은 책을 읽고 발제와 토론을 하면서 서로 간에 배움을 넓혀가고 있다. 94년 첫 모임을 가진 이래 매년 네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해오고 있는데 그 중 세 번은 씨튼연구원에서, 한 번은 1박 2일로 사찰이나 기톨릭 수도원 혹은 피정의 집, 유교의 향교, 원불교 수련원 등 각 종교의 수행처나 시설에서 모임을 해왔다. 그때 각 종교 의례나 의식에도 참여함으로써 이웃종교를 체험하는 기회도 갖고 있다. 20년간 이 모임에 함께 해온 나는 이웃종교 안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은 대화모임을 은퇴하셨지만 초창기 씨튼연구원 창립회원이셨던 전 중앙승가대학총장 종범 스님은 대화가 무르익어 갈 때 즈음이면 선사답게 일침을 가해 저희의 대화를 통합해주시곤 하셨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10여년 간 함께 해주신 해주 스님의 해박한 학문학적 해석 또한 이 모임의 대화를 심화시켜주곤 했다. 해주 스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바 있다. “그 전에는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모임을 통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종교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간 씨튼연구원에서 해온 종교간 대화는 녹취



정리하여 운주사출판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그동안 이루어진 종교대화에 관심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일독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본다.

지난 8월 한국을 다녀가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른 사람의 신념을 존중하고 개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자신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기보다 스스로 그 신념에 충실히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종교인일수록 자기신념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한 것 같다. 이렇듯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고착되어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시대정신에 맞추어 재해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석존께서 가르치신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자각한다면 세상 변화에 유연성을 가져질 수밖에 없으리라. 그건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큼 무상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불교계의 현실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나 만일 한국불교가 현대사회의 실상을 직시하면서 그에 걸맞은 무상 연기적 해석과 실천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한국불교는 출세간적 종교에 머물 위험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진단해본다.

### 3. 오늘을 사는 불자들에게 가는 기대



작년에 20돌을 맞은 씨튼연구원은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에서 〈하나뿐인 지구, 생태문제와 종교간 대화〉라는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대한불교조계종에서도 여러모로 후원해 주셨고 총무원장이신 자승 스님께서 직접 축사까지 해주셨다.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런데 행사를 마친 후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심포지엄에 대한 스님들의 참여도가 의외로 저조했다는 사실이다. 장소도 조계사이고 주제도 현대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생태문제를 다루었기에 많은 분이 오시리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발제하신 스님들과 몇몇 분을 제외하곤 스님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불교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도 나름대로 했는데 스님들을 비롯한 불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게 마음에 남아 있다. 지난 10년간 생태문제를 주제로 종교인 책임을 해오면서 석존의 연기적 가르침이야말로 현대인들이 되새겨야 할 생태적 지혜라고 생각해온 나는 이 사실이 더더욱 의아하게 여겨진 것이다. 그러면서 중앙승가대학에서 있었던 씨튼연구원 10주년 기념심포지엄 때가 떠올랐다.

그때 심포지엄의 주제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수행〉이었다. 장소도 스님들의 배움터여서였는지 당시에는 청중



의 절반 이상이 스님들이셨다. 물론 전자와 후자 간에 발생한 차이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게 남은 의문은 왜 스님들은 ‘깨달음이나 수행’과 같은 주제에는 큰 관심을 갖는 데 반해, 현대사회 문제에는 관심이 덜한가 하는 것이다.

오래 전에 현옹 스님의 <깨달음과 역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스님께서 보살(Bodhisattva)을 깨달음(Bodhi)과 역사(sattva)의 합성어로 해석한 게 신선히 다가왔다. 스님은 이 책에서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의 영역에 자족하지 않고 역사의 길에 나서는 것은 존재에 대한 사랑(慈)과 연민(悲) 때문”이며 “자비야말로 역사적 행위의 원동력으로서 깨달음과 역사를 뚫어내는 고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나는 한국불교계가 출세간적 깨달음 추구에 보다 더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 혹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먼저 깨달은 후에 세상으로 나가야지 수행이 덜된 상태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 중심적 삶이 되기 쉽다. 그래서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중용』 제27장을 보면 “숭고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중용을 실천한다(極高明而道中庸)”라 하여 깨달음의 완성은 중용을 따름에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군자는 출세간에 머물지 않고 인륜일용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인륜일용 안에 머무르는 것(超人倫日用 而又卽在人倫日用之中)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의미겠다. 나는 진정한 깨달음은 수행과 자비실천의 역동성 안에서 비로소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수행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실제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며 삶에서 깨달은 바는 다시금 자기수행의 깊이를 더해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위에서의 군자상은 유가전통에서만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라기보다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인간상이 아닌가 싶다.

불교가 오늘날 세계대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건 부처님께서 당신 생애의 긴 시간을 자비행에 바쳤다는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리라. 나는 부처님께서 이 시대를 사셨더라면 무엇보다 생태문제와 같은 현대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지금 여기를 사는 이들 안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어떻게 구체화시켜낼지를 예민하게 성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을 사는 종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

#### 최현민 수녀님은

현재 종교대화 씨든연구원 원장으로 있고, 영성생활 편집인 그리고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강사로 있습니다. 주요저서로는 <불성론 연구>, <불교와 그리스도교, 영성으로 만나다>,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생태영성>이 있습니다.

## 소임을 산다는 것은

제정 / 사교과

힘들다는 치문을 거쳐 사집 그리고 사교가 되었다. 사교 여름철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계절이다. 여름은 생각만 해도 덥다. 특히 이 운문사의 여름은 습하고 더워서 숨이 막힐 정도다. 그 여름에 나는 작은 별좌를 살았다. 내가 이 더운 여름날 운문사에서 작은 별좌를 살게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도반들의 권유가 아닌 자원해서 살게 된 소임인지라 누구를 텃할 수도 없었다. 봄 방학이 끝나가고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점점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드디어 여름철이 시작되었고 나는 고구마 맛탕으로 첫 음식을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 이를 여름철이 지나가고, 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준비를 했다. 재료 준비를 할 때도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있었다. 누구든 모양이 들쑥날쑥한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요리를 할 때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 가로 몇 센티, 새로 몇 센티 높이 몇 센티 자로 젠 듯 일정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 성격도 성격이지만 행자 때부터 상반스님들로부터 습의 받은 그대로 가 몸에 밴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도우미 나오는 도반스님들이 먼저 “샘플 보여주세요!”라고 한다. 내가 준 샘플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선 나도 모르게 불쑥 한 마음이 일어나곤 한다. ‘왜 샘플대로 해주지 않지……, 있는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저 밑바닥에 있는 마음이 순식간에 올라오고 한번 올라온 마음은 쉽게 가라앉질 않는다. 그러면 음식을 할 때에도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내 생각과 다른 음식의 맛이 나온다.

나는 요리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정성들여 만든 이 음식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음식을 하다 보면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맛있게 될 때가 있고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될 때도 있다. 잘되었을 땐 기분이 좋지만 조금 실수를 했을 땐 기분이 조금 좋지 않다. 이럴 땐 스님들도 한 마디씩 하곤 하는데 그때 나의 마음속에선 또 한 생각이 올라오곤 했다. 그때마다 은사스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는다. ‘대중 소임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란다. 복이 있어야 사는 거야. 부처님께 올린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하면 음식도 맛있단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불쑥 올라오는 마음을 다스리곤 한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올라오는 마음을 바라보고 다스리면서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방학이 되었다. 어느 상반스님은 방학을 하게 되면 조금 나을 거라고 하였다. 그러나 난 방학이 더 힘들었다. 방학이라 대중수가 줄어 음식의 양이 조금 줄어든 것 외엔 다를 게 없었다. 그렇게 방학도 어

느덧 반이 지났을 무렵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그날 작은 별좌 요리는 ‘비빔국수’ 먼저 국수를 삶기 위해서 냄비에 물을 부어 끓여야 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처사님들이 조치를 취하는 동안 시간은 흘러 공양시간이 다 되어갔다. 그 시간까지 물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이목소 까지 가서 물을 떠다가 면을 삶고, 이목소 물로 면을 행궈서 비벼 나갔다.

더운 여름철 정신없이 살 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운문사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작은 별좌를 살면서 실수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대중을 위한 큰 소임을 산 것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소임을 살면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조이기도 하고 소임자로서 아랫반 스님들도 챙겨야 하며 때로는 어른스님들께 걱정도 들어야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지내고 나니 지금은 처음 소임을 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커지고 단단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마음이 예전보다 조금 더 여유로워졌고 용감해졌으며 어느덧 성숙해져 있는 나를 볼 수 있었다. 다들 힘들다는 후원소임을 한 철 살고 나니 이젠 예법한 사교반 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나 할까?

여름철 소임을 살면서 온사스님의 말씀처럼 ‘모든 대중스님들을 부처님처럼 모셔야 한다.’는 말씀이 새록새록 가슴에 와 닿았으며 나의 다양한 마음을 돌아보고 주위도 살필 수 있는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매끼마다 나의 정성을 담아 공양 올릴 수 있음이 뜨거운 여름날 밝고 시원한 보람이 되었다.

부족하지만 한 철 맛있게 드셔주신 모든 대중스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합장 올리며 더욱더 낮아지고 넓어진 마음으로 부처님 제자로 걸어가는 이 길에 부끄러움 없는 수행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한다. ●



## 원두반 스님들

덕인 / 사집파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제까지 부지런히 씨 뿌리고 신경 쓰며 가꾸었던 풍성한 결과물들을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점차 무르익어 가는 채소들이 따가운 가을 햇볕 아래 색깔이 선명하고 도톰한 그 본모습을 내보입니다.

도감스님 지시에 따라 행동력을 보이는 사집반 스님들도 점차 가을철에 적응해 가며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름철부터 여름방학까지 남는 반으로 운문사를 지키느라 조금 지칠 법도 하지만 그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서늘한 가을바람이 땀과 함께 식혀 주니 겨울철까지 나아갈 힘을 여기서 다 얻는 것 같습니다. 청풍료 안에만 있었더라면, 맛볼 수 없는 밭의 또 다른 알찬 재미입니다.

저는 삼성각 부전과 종무소 소임을 보느라 원두반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온전히 밭을 체험하기는 이번 철이 처음이었습니다. 땅과 함께 호흡하는 원두반의 재미를 반년이나 모르고 지나간 것과 같습니다. 힘들긴 할 것 같아도 한껏 기대에 차서 멋모르고 반스님들을 따라 밭에 나가 보니 청청한 가을 하늘 아래 단단한 갈색 땅을 기반으로 한 초록밭이 넓게 펼쳐져 보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실하게 붉은 고추빛깔이 반짝거리는 것이 멋밋할 틈 없는 예쁜 자연의 장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옆에 아직 자라는 단계인 말이 맹그란 호박도 참 귀엽습니다.

그러나 풍경에 빠져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을 땔 도구를 챙기고 나름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고추를 가득 실은 컨테이너들이 하나, 둘, 셋, 넷 채워집니다. 동시에 뿌듯함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뭐든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노력에 비례하는 값진 결과를 땀방울 끝에 다시 한번 알아갑니다.

이런 근본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수행도 거침없이 하나하나 꾸준하게 단단한 벽돌 쌓듯 이뤄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척척 해나가는 밭 울력과는 다르게 온전한 노력을 들여 쌓아가는 수행의 마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울력하며 정성들이고, 움직이며 기도하는 마음이 둘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노력하면 끝엔 후회가 없고 일이 완벽하진 않았어도 뿌듯하고, 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나 능률이 오르지만 그러기 전에 해태함 먼저 일어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해도 몸이 피곤하다는 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 멋대로 하길 좋아하는 생각 안에 몸이



조복당해 버립니다. 말이 쉬운 노력이지 항상 하지 않은 것 또한 열과 성을 다한 온전한 노력이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설령설령 지나가고 나면 뭔가 점점한 후회감만 남습니다. 이런 후회감이 남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미련이 남지 않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럴 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수행해 나가야 할지, 끊이지 않는 번뇌와 경계가 생깁니다.

원두반 스님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각각의 경계에 부딪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문사 안에 있습니다. 억지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새벽 4시에 몸이 움직이고 시간이 되면 공양 나가고 때맞춰 울력하러가는 대중 안에 있기에 내 근기애 맞는 노력을 찾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같아 조금 고단한 울력 끝에도 ‘이게 운문사를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소홀히 할 순 없단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는 대중의 눈도 눈이지만 맡은 바 소임을 잘 살아 줘야 도량이 원활히 돌아가고 모두가 살기 좋은 대중생활이 되기에 노력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두반의 소중한 터진인 밭 안에서 서로가 부대끼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깨달아 가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입으로 암전히 들어오는 다져진 채소들만 많이 봐왔지 직접 흙냄새 맡아 가며 씨앗부터 열매로 맺어져 나오는 결과물을 보기까지 긴 시간과 노력을 생각도 못해봤었습니다. 모든 것엔 크든 작든 이렇게 과정이 있고 그 안에서 배워 가듯, 고요함에 도달해 있기 전 단계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인연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상황이,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결과로 맺어지는 나의 행동도 없을 것이 당연하기에 인연법이 이렇게 신기한가 하고 연 따라 자라는 채소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원두반에게 밭일은 아주 당연한 일인 만큼 그게 전부이고 소중한 일이기도 하기에 일에 임하는 마음에는 책임감이 가득합니다. 한 철 동안 애쓰는 가을철 반장스님 부반장스님 일년 소임에 노력 을 가하는 도감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무가 떨어뜨리는 낙엽이 점차 멎어지고 양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풍경에 회색 목도리와 모자가 찬 겨울바람과 맞물릴 때면 이젠 고추밭이 아닌 눈밭에서 익숙한 싸리빗자루를 들고 부지런히 쓸기 삼매에 빠져 다시금 도량 정돈에 들어가겠죠. 그때쯤이면 우리의 마음 한 자리도 지금 이 자리보다 한 단계 더 견고히 정착해 있기를 바랍니다. ●

## 잘 익은 마음밭 고추

송연 / 사미니파

본격적인 가을철의 시작. 날씨는 아직 여름 같지만 점점 하늘이 높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곳곳에 가을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고추 따기 울력을 할 때 빨갛게 무르익은 고추를 보며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얘네들도 이렇게 익으려면 뜨거운 햇살에, 모진 바람과 세차게 퍼붓는 비를 이겨냈겠지……’. 그렇게 견뎌 늙름하게 익어 밥상에 올라 우리들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아름다운 회향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나도 늙름하게 잘 익으려면 고추들이 겪은 뜨거운 햇볕과 모진 비바람 같은 힘든 시간을 거쳐야 하겠지 하면서…….

고추들이 이겨낸 시련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나 자신이 익어가는 과정중 하나겠지’라고 느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고자 한다. 여름철을 앞두고, 다가올 여름 한 철은 내가 흘릴 땀에 만족하지 않고, 반 스님들이 흘린 땀 한 방울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자고 다짐을 하며 부반장 소임을 맡이했었다. 어려울 것은 없었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약간의 부담을 안고 시작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 여파였을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소임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지대방에 흘날리는 파자봉지, 음료수캔 하나에, 웬지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은 반스님들의 모습에 종종 튀어나와 버리는 진심眞心과 그로 인한 유연하지 못한 대처가 때때로 반스님들의 오해를 사게 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저 소임만 잘 살아내면 되겠지라는 일방적인 의욕만 앞서게 되었고, 치문반을 위한 소임이 아닌 마치 나 자신만을 위한 소임을 살고 있는 듯한 생각마저 들더니 결국은 여름철을 맞이하며 했던 다짐은 점점 쌓여오는 피로와 함께 오로지 내가 하루 종일 흘리는 땀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당연히 부반장 역할이 힘에 부치기 시작했고, 한 번 시작된 힘이 든다는 생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울력 한 번, 설거지 한 번에 뻗어버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하루하루 점점 더 명해져가는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한창 불사 중이었던 범종루 앞을 포행하면서 유심히 범종루를 쳐다보게 되었는데 단순히 나무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황토도 들어가고, 기와도 들어가고, 대리석에, 범종루를 밝혀줄 등을 켜기 위한 전선 등 단순할 거라고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여러 재료가 들어가는 듯 보였다. ‘하긴 건물 하나 짓는 게 단순할 리는 없지’ 하면서 청풍료로 돌아오는 길, 입선을 앞두고 큰방으로 경상을 맞잡고 하나씩 들이는 반스님들의 모습에서 나는, 치문반이라는 건물을 짓는 공사장에 소임을 잘 살아야겠다는 나 자신으로만 이루어진 벽돌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

다. 나 자신이 쌓은 성이 결국은 내가 한동안 부반장 소임을 살면서 힘겨운 이유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 소임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내 에고였다. 너무 내 에고에 사로잡혀 내 에고가 비대해 질수록 나와 반스님들 사이는 이어지기 힘들어질 수 있음을 느꼈고 나 자신만의 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조차도 세울 수 없음을 생각했다. 나무 한 가지만으로는 범종루가 지어질 수 없듯이 말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고, 치문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아, 타자를 배제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이 짓는다’라는 광고카피도 있지 않는가? 그날 이후 치문반이라는 건물 공사장에 나 자신의 벽돌만이 아닌 반스님들이라는 다양한 재료를 조화롭게 사용해 멋진 치문반이라는 건물을 지어가는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부반장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반을 위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다행스러웠던 것은 부반장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바뀐 생각에 대해 자체하지 않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반스님들이 좋게 봐주고, 이전보다는 달라진 작은 변화가 생긴 내 모습을 느껴준 것이다. 이에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비록 호들갑스럽고 떠들썩하게 한 번의 부반장을 살았지만 다가오는 아쉬움, 후회, 후련함 속에서, 반스님들을 보며 내가 갖지 못한 모습에 대해 반성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조금 커진 것에 작게 나마 내가 익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란 의미를 부여보고 싶었다. 또 이런 생각을 통해서 치문때는 벗어던질 수 없는 짐이라고 생각했던 아직은 강원에 대한 낯섦, 긴장, 버거움 같은 힘든 점을 대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좀더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세상을 살면서 수 없이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은 자신이 만들고 또 자신밖에 풀어 갈 수 없다’라는 말이 더 절절하게 다가왔던 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소임 한 철을 사는 동안 본인도 무척 힘들었을 텐데 내가 힘들고 투정부릴 때마다 웃음과 조언으로 힘이 되어준 내가 기댈 수 있었던 박카스와 같은 존재 반장스님과, 부족했던 내 모난 모습까지 잘 봐주고 격려해 주었던 반스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다. 길고 긴 가을철, 가을이 왔다고 해서 물려오던 피로가 안 올 것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졸음이 안 쏟아질 것도, 하루하루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요동치는 마음이 안 생길 것도 아니지만 지난 한 철 값진 경험을 늘 품고 언제, 어디서나 가을바람 같은 신선한 의욕과 신심 가득 찬 생활을 할 수 있길 서원誓願해본다.



원에 대한 낯섦, 긴장, 버거움 같은 힘든 점을 대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좀더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세상을 살면서 수 없이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은 자신이 만들고 또 자신밖에 풀어 갈 수 없다’라는 말이 더 절절하게 다가왔던 경험 이었다. 마지막으로 소임 한 철을 사는 동안 본인도 무척 힘들었을 텐데 내가 힘들고 투정부릴 때마다 웃음과 조언으로 힘이 되어준 내가 기댈 수 있었던 박카스와 같은 존재 반장스님과, 부족했던 내 모난 모습까지 잘 봐주고 격려해 주었던 반스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다. 길고 긴 가을철, 가을이 왔다고 해서 물려오던 피로가 안 올 것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졸음이 안 쏟아질 것도, 하루하루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요동치는 마음이 안 생길 것도 아니지만 지난 한 철 값진 경험을 늘 품고 언제, 어디서나 가을바람 같은 신선한 의욕과 신심 가득 찬 생활을 할 수 있길 서원誓願해본다.



연꽃,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명오 / 대교파

을여름은 다른 해에 비해 더위가 고요하여 신선한 여름  
을 보냈습니다.

운문사에서 지내는 동안 매 철 보아왔던 운문지를 통해  
여러 사찰과 선배스님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운문사 50주년 동문회 때 ‘자랑스러운 운문인상’을 수상하  
였던 회운 스님을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스님은  
30여 년 동안 오로지 연꽃을 천백 억화선 부처님과 같이 여  
러 모습으로 표현하는 데에 전념하며 미술로써 포교와 수행

을 삼는 자랑스러운 선배님입니다. 작년 동문회 때의 회운 스님을 기억해보니 회운 스님은 상을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며 도심에 머무르고 계신 스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저희를 위해 점심공양을 정성껏 준비하시고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Q. 저희 작년 50주년 동문회 때 '자랑스러운 운문인상'을 받으셨는데요. 현재 운문인의상을 받기까지의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좋아서 계속 그리다 보니 학교 다닐 때부터 대회에 나가면 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이 늘더군요.

출가해서도 기회가 되면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강원 졸업 후 본격적으로 20년 동안 연꽃을 그리고 있지만 저는 예술이 창작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방이 창조이고 창조가 모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꽃이지만 보는 각도, 모양과 색채에 따라 연꽃은 한 이름으로 여러 형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는 인사동으로 향합니다. 급변하는 트렌드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여러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보고 난 후 느낌과 색채를 저의 연꽃에 접목을 시켜봅니다.

이렇게 20여 년 동안 해온 결과, 저는 이제 저만의 컬러를 찾았습니다. 색채, 기법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저의 느낌대로 그리고 색을 칠해나갑니다.

저는 이 연꽃 그림을 화두, 기도로 생각하고 그립니다. 한 작품을 보통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시간투자를 해야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나옵니다.

사람인자라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조차 버거웠지만 지금은 구애받지 않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Q. 급변하는 시대에 운문사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끔 옛 선배님들의 생활이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공부하고 생활하였는지요?

제가 70년대 학인이었는데 요즘과 달리 10대 출가자들이 많았고 6년 교육과정이었습니다. 현재 회주스님께서는 그 당시 학장소임을 맡고 계셨었는데 당시 어린 출가자들을 배려하여 부처님 경전 외에도 외전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완전한 자급자족시대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농사도 지었습니다.





벼농사, 콩, 보리 등등의 기본적인 채소들은 모두 저희 스님들 손으로 직접 심어 수확까지 했었고 제가 입승소임을 살던 때에 원두반스님(2학년) 수확물로 꽃꽂이를 제안해왔어요. 그래서 각 방 어른 스님과 대중스님께 공양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 뿐만 아니라 나무도 직접 해서 불을 때고, 인분 푸기, 목욕물 가마솥에 끓이기 등 지금은 아주 먼 옛일이 된 것들을 직접 손수 하고 살았던 아날로그 시대의 멋과 낭만이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들을 100여명이 넘는 대중과 함께 하다 보니 규칙도 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 하나’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대중을 놔롭게 하는 것만큼 큰 잘못이 없습니다. 대중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작은 일이 큰 일로 커질까 하여 혹은 다른 스님의 참회하는 모습을 보고 본보기로 삼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듯 운문사 강원생활은 수행과 일 그리고 경공부가 하나라는 것을 체득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Q. 선배스님으로서 후배 학인스님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살다 보니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절보다는 교회로 많이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교회는 분위기가 비교적 밝고 이야기하기 편해서 그런지 서로 대화하는 범위가 넓기에 수많은 정보가 많습니다.

즉, 젊은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이 원활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 불교는 이름 자체만으로 무거운 분위기에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스님들은 부처님의 사상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수행력을 겸비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수용할 것은 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 부처님 법을 보다 널리 퍼트려 다가오고 싶은, 알고 싶은 불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그림수행을 하는 선배스님을 뵙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볍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행 아닌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4년 강원생활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신심이 났다. 재발심해서 시간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부지런히 보고 듣고 경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스님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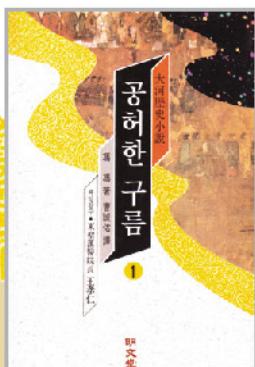
늦은 가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오 / 49회 졸업생



## 『공허한 구름』전 5권, 馮馮저, 明文堂출판

효림 / 한문불전대학원 1학년



마른장마로 애태우던 하늘이 이번엔 그칠 줄 모르는 비로 또다시 애를 태운다. 예년에 없던 폭탄 비다.

지겨우리만치 꽉붓던 비가 문득 자취를 감추자 하늘이 비로소 얼굴을 내민다. 그런데 낯빛이 바뀌었다.

청아한 푸른 빛이 더 없이 맑고 높다.

그 허虛를 구름이 노닌다. 함께 하고픈 마음에 얼른 청량한 차향을 우려낸다.

허虛에 운雲이요, 허虛한 운雲로다……

이곳 운문에 짐을 푼 건 초발심을 되찾고 싶어서 였다.

부처님이 되는 일 외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며 매몰차게 짐을 나섰던 나는, 주객이 전도된 듯 한 생활 속에 점점 안일해지고 방일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온몸에 생채기를 내고서야 깨달았다. 그것이 스스로 낸 상처들임을.

짐을 푼 게 엊그제 같기만 한데 봄, 여름 두 철을 나고 어느새 가을철이다.

오롯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음에도 생각만큼 나 자신을 단속하는 일이 쉽지 않아 젤젤 매는 동안, 시간은 야속하게도 세 철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런 내게 두 번의 행운이 찾아왔으니, 그건 바로 『기신론』을 다시 보게 된 것과 『공허한 구름』을 통해 하운 스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모두 과거 현재 선지식들의 은혜요, 자비심 덕분 이리라.

나에게 찾아온 행운이 비단 내계서만 그치지 않고, 나비효과가 되어 온 도량이 행복하길 기원하며 책 『공허한 구름』을 소개한다.

『공허한 구름』은 아편전쟁부터 시작된 중국의 비참하고 혼란했던 근대사를 배경으로 한다. 이 안

에 투쟁의 이례을로기에 감염돼버린, 인간이라 불리는 생명들의 잔혹사와 겸허한 수행자로 살다 간 생명 허운의 120년 개인사가 있다. 작가는 이 둘이 따로인 듯 불가분의 관계로 살아가는 모습을 담담히 그려낸다. 이 둘을 억지로 연결지어 스님을 영웅화시킨다거나 신격화시키는 조잡함 따윈 없다.

중국불교의 가장 뛰어난 스승이라 칭송되는 허운 스님을 이야기함에, 이러한 담담함이 내겐 오히려 대담함이 되어 기습을 흔들어 대곤 했다. 아무런 치장 없는 생생한 만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더욱 그가 얼마나 위대한 영혼이었으며 위대한 스승이었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 장을 넘기면 그 순간부터 나는 스님과 함께 숨을 쉬며 발심했고 출가했으며, 불법을 배우고 수행했다. 그리고 불법을 대중과 함께 나누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다 생을 마무리했다. 자그만치 120년이라는 긴 여정은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고통스럽고 꼼직했다기보다 -스님의 이름 虛雲(공허한 구름)처럼- 그저 한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의 담박함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허운스님의 도력이 아닐까.

스님은 선의 실천적 수행뿐만 아니라 여러 종파의 심체를 퀘뚫고 타 종교까지도 아울러 회통 시킬 수 있는 경전에 대한 해박함에다 깊은 선정력까지 지녔음에도 이를 권력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며, 무애행의 허울을 뒤집어쓰고 자신과 후학들을 기만하는 개차법開遮法을 쓰지도 않았다.

오로지 수행자의 삶이라는 테두리 밖을 지혜와 자비의 양날로 한 치도 허용치 않던, 고결한 용기만이 있었을 뿐이다.

때론 사회가 이 순박한 수행자를 신묘한 도력의 소유자로 칭송하기도 했고, 미신을 앞세워 대중을 선동하는 반동분자로 낙인찍기도 했지만 스님은 그저 이 질곡의 세월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경건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대승불교의 원력을 묵묵히 실천할 뿐이었다.

스님은 입적의 마지막 순간, 가르침을 청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우리가 인연이 있어 이렇게 불법 속에 서로 모였으니, 부지런히 계戒를 닦아 정定·혜慧하게! 인색하고 분별없는 행동을 없애도록 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길러 중생과 세상을 구제하도록 하거나, 또한 반드시 곳곳에 불법을 넓히고 또한 육도만행과 불심을 행하도록 하거나.”

“내가 출가인을 위해 보존한 이 대령의 大鈴衣를 반드시 보호하도록 하고. 허나 이를 어떻게 영원히 보존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계戒’를 통해서지!”

마치 허운 스님은 책『공허한 구름』을 통해 우리 불교와 우리들의 이상이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를 자상하게 보여주시며 초발심, 재발심을 하려는 나와 같은 이들을 위해 말 그대로 교과서가 되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듯 하다.

“자! 같이 걸으세…!”

# 관계로써 성장 하라

삶은 경험과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한 뺨만큼 마음이 성장하려면 그 보다 더 큰  
아픔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픔이 두려워 또는 남의 시선이 부  
끄럽고 부담스러워 닫기만 하고 도망가기만  
하면 삶이란 성장의 기회에서 절대 나아지지  
못한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삶을 바란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나누고  
나를 드러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즉 관계를 벗어나서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다.

얼마 전 불교 수행을 하는 작가의 책을 한 편 보았다. 물론 처음에는 과연 종교가 불교라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속에서였다. 책은 주인공을 비롯하여 나오는 등장인물들마다 다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상처는 상처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책은 그 속에 나온 인물들이 가족, 애인, 친구 등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는 과정들을 그려냈다.

아마도 현실 역시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의 아픔이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지배 할 만큼 기억나지 않는 초기의 영상이 각인되어 삶을 괴롭히거나 어린 시절 친구들로부터 받은 놀림, 폭력 등 상처의 뿌리도 제각각, 상처로 느끼는 강도도 상대적이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상처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상처 속의 나를 꽁꽁 싸매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상처를, 마음을 내어놓으며 나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먼저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은 상처들이 사람마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생각의 차이로 혹시나 나와 다를 수 있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두려

움, 수치심이나 자존심 등의 여러 부수적인 나쁜 마음들이 작용될 수 있기에 어렵고 힘이 든다.

그렇기에 나의 마음속을 보여 줄 때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한번 용기를 내어 말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내어놓는 순간 그 상처는 나와 분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리가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상처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상처가 곧 내가 아니라 상처는 과거의 내가 겪은 일과 감정일 뿐이고 지금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나누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마음의 작용들이 보이게 되고 공감받게 된다. 그러다 보면 상처 속의 나를 사랑하고 다독이면서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누지만 사실은 상대방은 단지 잘 듣고 자신들이 겪은 만큼만 나눌 뿐이다. 하지만 관계를 통하여 주고받으면서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결국 나만이 나의 의지로 해답을 찾아가며 치유하는 성장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얻는 치유 방법 중의 다른 하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의 입장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나 역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삶을 통하여 성장하는 과정이기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했기에 상처가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정의, 가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 이해하는 과정이 생기게 된다.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나의 상처를 다독이게 되고 자연적으로 아문다. 그리고 상대방도 보이기 시작한다. 곧 세상은 나만 상처를 받고 아픈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픔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만큼 다른 이들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된다.

삶은 경험과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한 뺨만큼 마음이 성장하려면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픔이 두려워 또는 남의 시선이 부끄럽고 부담스러워 닫기만 하고 도망가기만 하면 삶이란 성장의 기회에서 절대 나아지지 못한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삶을 바란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나누고 나를 드러내 보는 것은 어떨까?

가을, 지금 이곳, 내 옆에 있는 아들과 함께 말이다. ●

## 운문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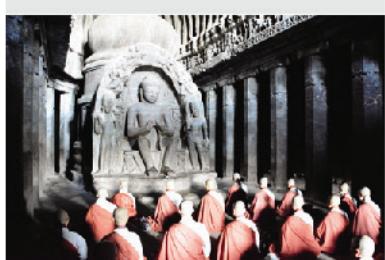
▲ 오백전 입재



▲ 제43회 운문사 총동문회



▲ 외랑오계비 이전 제막법회



▲ 제51회 졸업생 인도성지순례



▲ 사리암 카페 수계식

- 8월 30일 가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8월 31일 오백전에서 '오백나한님과 함께하는 100일간의 수행' 기도 입재가 있었고 대웅전에서 일진 주지스님의 입재법문이 있었습니다.
- 9월 3일 염불수업을 시작으로 요가 및 서예 외전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9월 7일 추석맞이 송편 빚기 대중율력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3일 '제43회 운문사 총동문회 및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 9월 20일~22일 화엄반스님들의 졸업여행을 위한 신중기도가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5일~28일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해주 스님의 법성게 특강이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1일 치문반스님들의 첫 논강이 주지스님과 강사스님들, 화엄반사교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2일 중구일제重九日祭가 조사전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3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4일 동화사 송시 법고대회에 사교반, 사집반스님이 참가하여 2위로 수상하였습니다.
- 10월 8일 '승가 규율을 통한 참된 군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육군3사관학교에서 일진 주지스님의 법문이 있었습니다.
- 10월 17일~31일 원묘 교무스님과 제51회 졸업예정 화엄반스님들이 13박 15일간 인도 성지순례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11월 2일 화랑오계비 이전 및 제막 법회가 있었습니다.
- 11월 8일 가을철 첫 자자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51회 인도 성지순례 졸업여행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 11월 9일 운문사 사리암 카페 150여 명의 불자님들 수계식이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일진 주지스님께서 수계해 주셨으며 강사스님들과 화엄반스님이 참석하였습니다.
- 11월 20~21일 김장대중율력이 있었습니다.
- 12월 3일 가을철 마지막 자자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12월 4일 가을철 종강을 합니다. 한 철 근념하셨습니다.

### 도화주신 분

- 원담 스님    • 명훈 스님    • 이기태    • 정해옥  
    • 권혁창    • 이정숙    • 노기용    • 송암사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 2002년에 「雲門誌」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10년이 지난 관계로 주소가 삭제되었으나  
신청을 원하시는 재기신도분들은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이번호 「담소」는 쉽니다.

#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15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문사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b>자 격</b>	1. 2015년 몸 수계자까지(행자교육 48기까지) 2. 타 승가대학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b>모집인원</b>	사미니과 ○○명
<b>시험과목</b>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b>제출서류</b>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b>준 비 물</b>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동방아 (복장은 반드시 사미니 의제 착용, 구족계 수자자는 제외)
<b>모집기간</b>	2015년 1월 23일(음력 12월 4일) ~ 2015년 2월 7일(음력 12월 19일)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등수 가능)
<b>도착일시</b>	2015년 2월 7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b>시험일시</b>	2015년 2월 8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b>교 통 편</b>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운문승가대학 학장 홍륜 · 주지 일진	

##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b>모집대상</b>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5년도 몸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b>모집인원</b>	○명
<b>제출서류</b>	1. 입학원서(본 대학원 · 율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 증명사진 2매
<b>전형방법</b>	서류심사, 면접
<b>준 비 물</b>	가사, 장삼, 승려증
<b>전형일시</b>	2015년 2월 7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 승가대학원장 홍륜 · 보현율원 윤주 홍륜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http://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가을호·통권 제130호 · 2014년 11월 24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문 · 진광 / 편집 · 운문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나경 / 편집위원 · 나경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나경(丹) / 삽화 · 해운 / 편집디자인 · Design MARU  
(디자인 마루) (053)426-3395